

간호 학생의 차이점

<연세대학교간호대학부교수> 왕 매 련
Miss Marian Kingsley

제가 부탁받은 원고의 내용은 한국과 미국 간호 학생의 차이에 대해서 입니다. 저는 14년 동안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간호사업 및 교육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대체로 간호학생을 가르쳤습니다. 한국에 나오기 전 미국에서 간호학생과 졸업간호원으로서의 경험과 한국에서 일한 경험을 기본으로 해서 쓰려고 합니다.

× × ×

이 두나라의 간호학생들에 있어서 하나의 근본적인 차이는 공부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느끼는 이 두나라의 교육철학은 아주 달라서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아주 다릅니다. 미국의 중요한 교육목적은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반면에, 한국의 교육목적은 교과서를 의우고 그대로 되풀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이 두나라의 교육목적은 아주 달라서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다릅니다. 의우는 것만을 기대하면 선생이 강의할 때 학생들이 잘 듣고 필기한 것을 의우면 됩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것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들 분석하고 결론을 내려서, 이해력이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면 의우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강의나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개인 공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먼저 공부하는 제목과 관계있는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결론

을 내리는 것은 그대로 의우는 것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에 한국말로 쓴 간호 참고서적이 많지 않은 줄은 알지만,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 영어 참고서적도 좀 사용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 × ×

며칠전 친척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의 조카딸이 뉴-욕주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졸업반인데 숙제 가운데 한 가지는 제목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 여덟 가지 책과 다른 재료를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카-드에 적는데 100장 쯤 썼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고등학생이 하는 숙제입니다. 요사이 한국에서도 어떤 선생은 간호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숙제를 주는 줄 알지만은 대체로 간호학생들의 교육배경 때문에 이러한 숙제를 많이 해 보지 못하여 자기 자신을 발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열심으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두나라 학생들의 또 한 가지 차이는 대체로 미국 간호학생들은 병실 실습하는 것을 교과시간보다 더 좋아하지만 한국 간호학생들은 교과시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간호학생들이 실습할 때 필요한 임상교육을 얻을 수 있는 적당한 환경이 되어 있고, 잘 계획하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한국에서는 간호학생들이

실습할 때 병원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므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만을 생각할 수 없는 현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는 많고 졸업생수가 부족하면 간호학생이 많은 환자를 간호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이므로 앞으로 해결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또 이 문제와 관계있는 것은 한국에는 잘 훈련된 임상실습지도자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차차 더 많은 한국 간호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좋은 임상실습지도자가 될 줄 압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양반을 아주 존경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양반들이 공부하는 많이 했읍니다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읍니다. 위업을 손상시키는 꼴로 알아서 자기 책도 들고가지 않고 종(하인)에게 들리워 가지고 서당에 갔읍니다. 현재도 이러한 개념이 한국 간호학생의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기독교 교훈이 많은 영향을 미친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일하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쳤읍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행동으로서도 가르쳤읍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단찬을 나누셨을 때, 수건과 더운물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읍니다. 그 당시는 지도하는 사람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하신 후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손으로 일하는 것으로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자기가 낮아지는 것이 아닌줄 압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발전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믿는 까닭입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찬미하는 것이 좋지만 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도 강조하면 좋을 줄 압니다.

× × ×

또 한 가지 차이는 대체로 간호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환자의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것을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간호학교 교육에서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필요

성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간호학생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할 수 있게 하려면 선생님들이 먼저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후에 가르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환자가 병원에 올 때 보호자가 따라오기 때문에 간호원들은 심리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보호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습관이 되어 보호자가 없는 환자도 심리적인 요구에 대해 간호원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간호원이 다 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절인 간호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환자의 친척이 보호자가 되는 것보다 방문객이 되던 좋고, 보호자가 있으나 없으나 환자의 모든 간호가 간호원의 책임이므로 직접 간호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간호원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호자가 있어도 환자의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간호원의 책임입니다.

대체로 미국 간호학생들이 더 많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남녀 공학이 많고 배우자를 택하는 것도 자기 자신의 책임입니다. 한국에서는 남녀 공학이 극립학교 이후는 그리 흔하지 않고, 배우자를 택하는 것도 대개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학생들은 데이트를 많이 하고 시핀과 문화의 활동도 더 많이 합니다. 한국 간호학생들의 이런 활동이 적은 이유는 기숙사의 규칙이 큰 영향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기숙사의 규칙이 엄하지 않지만 학생들 자신이 시간을 잘 계획해서 시간표를 만들어 공부하는 시간과 그외의 활동 시간을 계획합니다.

이상 여러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썼읍니다. 물론 두 나라의 문화가 다를때 그 두 나라 학생들의 차이가 많습니다. 한국의 전문직 간호역사가 60년 밖에 되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 많이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여학생들이 좋은 간호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볼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